

정읍시 농축산 미생물산업 활성화 박차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포럼 개최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R&D사업 적극 추진

정읍시가 축산약취 등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산 미생물을 활용한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정읍시에 따르면 신장동 전북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인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지난 25일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전북도, 정읍시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기관장, 입주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북대 허재영 교수의 '유기 장애 미생물 공생과 활용 응용 예고 축산 시범사업 추진 방안', 국립농업과학원 송재경 연구관의 '농업용 유용 미생물의 현장 활용 기술 개발', 전북대 조호

성 교수의 '돼지 장내 미생물총 기반 질병 관리 방안', 연세대 김지현 교수의 '농축산용 마이크로바이옴 현황 및 전망'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대혁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 방법 등을 설명하고 "산·학·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활성화와 지역 현안과 연계된 R&D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사 이후 센터 입주기업인 (주)마이크로자임과 정읍시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입주자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첨단과학산업 기반을 네트워크화하고 정부정책과 연계한 R&D(사업화 연계 기술개발사업) 역량을



지난 25일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전북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정읍시, 입주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 활성화 전략 포럼'이 열렸다. <정읍시 제공>

강화해 축산약취 등 지역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추진 협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의 컨트

롤타워'를 목표로 개원해 국내 최대인 10t 규모의 미생물 발효시설과 입주기업 보육 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6개의 미생물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26일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들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생수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화물차 운전자 안전한 여름나기 생수 전달

여수광양항만공사 캠페인 손 선반기·기념품 제공

무더운 여름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행사가 진행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이하 공사)는 26일 광양항 3개 컨테이너터미널(SM상선광양터미널, 한국국제터미널, 광양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면서 안전 운전을 독려하는 교통안전 캠페인 'Cooling Summer With YGPA'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 40여명과 3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직원 10여명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터미널 출입구 앞에서 직접 화물차 운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얼음생수와 손 선반기를 전달했으며 안전 운전을 독려하면서 급증하는 대형차들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또 광양항을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방희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광양항을 이용하는 항만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양항 이용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광양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고학 통해 후백제 재조명 전주박물관서 국제학술회의

고고학을 통해 후백제를 기능해보는 국제학술회의가 27~28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린다.

이 학술대회는 전북도가 백제문화재를 조망하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고고학 자료와 성과를 토대로 전주시, 호남고고학학회, 전주박물관 등과 함께 마련했다.

'고고학으로 후백제를 알리다'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는 후백제 문화유적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오·월과 교류한 후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후백제와 오월의 국제외교'(백승호·중국 절강대학교 교수), '후백제 도읍과 외곽 방어체계'(곽장근·군산대 교수), '후백제 산성 출토유물 검토'(조명일·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남지역 후백제 문화유산 역사상'(최인선·순천대 교수), '후백제 불교미술품과 고고자료의 검토'(진정환·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원) 등 6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하미씨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우리 아빠' 대상

고창군 출산율 높이기 사진전

고창군이 출산율을 높이고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한 '제3회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공모전'에서 이하미씨의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우리 아빠' 사진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작품은 아빠를 바라보며 밝게 웃는 아이의 해맑은 표정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박상운 씨의 '할아버지 비눗방울 줌 보세요', 이주연 씨의 '선운사에 핀 엉덩이 꽃', 장태진 씨의 '코알라 가족' 등이 뽑혔다. 수상작은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시되며 각종 영·유아와 관련된 행사나 홍보물 제작에 활용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이하미씨의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우리 아빠' 사진이 대상을 차지했다. <고창군 제공>

"한여름 밤 문화재 체험하세요"

군산시, 근대문화 유산 일원 다음달 11일부터 '군산야행'

한여름 밤 문화재 체험행사인 '군산야행'이 다음달 11일부터 이틀간 근대문화유산이 밀집한 군산시 월명동과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군산시는 1899년 개항 이후 도입된 외부 문물과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지닌 근대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있다.

옛 도심권에 있는 근대역사박물관, 일본식 가옥,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대한제국 시대에 지어진 군산세관 등이 대표적이다. 군산시는 이들 근대문화유산을 역사문화 콘텐츠로 개발해 문화재 답사, 전시, 관람, 거리테마 공연, 체험 등 70여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산야행은 야로(밤에 걷는 문화유산거리), 야사(역사 이야기), 야화(밤 문화유산), 야설(밤 문화공연), 야경(밤 풍경), 야식(밤 먹거리), 야숙(문화재에서 하룻

밤), 야시(밤 문화장터), 야화(밤 풍경)로 나눠 진행한다.

근대역사박물관부터 동국사에 이르는 2km 구간은 LED 경관조명으로 '빛의 거리'를 꾸몄다.

군산야행은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문화재정 문화행사로 뽑혔다.

두양수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군산야행은 수탈과 항쟁의 역사가 보존된 근대문화유산을 향유하며 미래의 희망을 되새기는 색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광양시 12개사 전남도 유망중기 선정

서호산전·신성플랜트 등 3년간 판로·수출 혜택 제공

광양시는 '2018 전라남도 유망중기기업' 선정 결과 광양지역 기업이 전남에서 가장 많은 12개사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전라남도 유망중기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기업으로 재무상태, 기술력, 일자리창출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한다.

올해 선정된 광양의 유망중기기업은 ▲(주)서호산전(대표 김승호) ▲(주)신성플랜트(대표 라병열) ▲(주)신영엔지니어링(대표 김복식) ▲광양(주)(대표 김영훈, 김명훈) ▲(주)성원(대표 오

권석) ▲(주)삼우에코(대표 김윤자) 등이다.

또 ▲(주)제일시스템(대표 김중근) ▲(주)청호소재(대표 오수현) ▲(주)효석(대표 김효수) ▲(주)만보중공업(대표 남양준) ▲(주)피디텍(대표 박진완) ▲삼진기업(주)(대표 박경희)도 선정 기준을 통과했다.

유망중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하고 우대금리 지원, 국내 개별박람회, 수출 분야 지원사업 등 판로·수출 사업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형찬 광양시 투자지원담당관은 "전라남도 유망중기기업 선정을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우수성이 확인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속적인 기업지원과 사업발굴로 광양으로 모여드는 기업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 지 1,132㎡
- 건물 4,739㎡(공실없음)
- 매 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함술 딱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제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정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오피스텔 "금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은, 즉시 입주
- 내부 시설 완료, 사무실전용
- 8층, 33평 - 금매 8,400만원
- 2층, 38평 - 매매 9,400만원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 주택은 수리해야 함 38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쪽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400
- 월산동 리모델링완료 땅 144㎡ 2중주택 118㎡ 1억9500만 1층인대가

투자·매도·교환

- 전북 신대인 상업지 1213㎡ 은행3억6천 감정6억7천 교환가 4억6천
- 정읍시 신대인 대지 1108㎡ 공사가 8540 매도 9700
- 영암 삼호읍 준공업지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3천
- 나주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부근 전 3154㎡ 전원생활용 5300만원
- 무안 삼향면 왕산리 2차선점 4861㎡ 식당·창고등 적합 6억6천
- 나주시 석현동 2차선점 2538㎡ 거든·창고등 적합 2억7천
- 월산동 양면도로점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억 대로점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읍 주거지역 5223㎡ 공사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좋은 2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점 2중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 동구 수기동 대지 152㎡ 3중 상가주택 292㎡ 매도 4억천

상가건물

- 남구 양림동 대지 274㎡ 5층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3천
- 부안군 반산면 도청리 땅 792㎡ 팬션 건물 867㎡ 은행 4억7천 매도 8억2천
- 동구 충장로57길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카센타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층건물 297㎡ 현재운영중인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최적 69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레벨식~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마!!!

삼성계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에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문의 010-3598-7080